

2010년 G8정상회담의 공헌

캐나다 수상 스티븐 하퍼

“From Pittsburgh to Muskoka,” by Stephen Harper, Prime Minister, Canada

From “The G20 Pittsburgh Summit”
published by the G20 Research Group and Newsdesk Communications
www.g20.utoronto.ca/newsdesk/pittsburgh.html

캐나다 주최로 온타리오주 무스코카에서 2010년에 열리는 G8정상회담은 제 36회 (의장국으로서는 5회째)를 맞이합니다. G8정상회담은, 대성공을 거두는 단체인 것을 오랜 세월동안 증명해 왔습니다. G8은 입장을 같이하는 나라에게 전세계의 수만명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를 다루는데 필요한 추진력을 확립시킬 기회를 주고, 인류가 직면하는 몇몇의 긴급과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정비하게 합니다.

캐나다는 G8이 세계경제에 기여해 온 역할을 높이 평가합니다. 내년의 무스코카 정상회담은, 경제침체의 시기에 열린 시장과 자유 무역을 옹호하고,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참된 지구규모의 행동을 주장하며, 또한 자유, 민주주의, 인권과 법의 지배를 지지하는등, G8의 활동을 진전시키는 대단히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G8이 2010년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갈 의제로서 네가지의 폭넓은 분야- 세계경제, 기후변동, 개발, 그리고 민주적인 통치-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conomy (경제)

2008년 경제위기 이후의 국제적인 협력의 수준은 전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각국의 정부는 G8과 G20에서의 협력을 통하여,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경제침체를 자극하기 위해서 신속히 그리고 동시에 행동했습니다. 참가국은, 보호주의의 압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의사표명(commitment)을 했습니다. 캐나다의 금융부문은 분명히 건전 했지만, 우리들은, 보다 광범위한 세계적인 경제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요한 경기자극책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더욱 나아가, 일방적인 관세 삭감, 자유 무역과 경제연계 협정과 같은 야심적인 프로그램을 추구하기로 했습니다.

각국지도자가 무스코카에 모이는 2010년의 여름까지, 세계경제는 위기부터 탈출하고, 새로운 성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문제는 무스코카 정상회담에 있어서 전면적이며 또한 중심적인 의제가 될 것입니다. 참가국의 지도자들은, 위기에 대처하는 일시적인 정책대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들은 특히 고용 회복을 촉진시키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됩니다. 캐나다는 내년, 의장국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회복을 지지하는 일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Climate Change (기후변화)

유엔 기후변동의 국제교섭은, 코펜하겐에서 올해12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캐나다는, 야심적이고 포괄적인 새로운 협정-지구규모 배출의 대부분을 커버하고, 모든 주요 경제 대국에 있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건설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코펜하겐에서의 성공적인 교섭은, 깨끗한 에너지의 안전하고 저렴한 세계규모의 공급 확대를 포함하는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지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와 G8파트너국,또 미국 주최의 에너지와 기후에 관한 주요경제국 포럼(MEF)참가국의 리더쉽이 필요합니다. 향후 몇개월 동안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요선진국과 발전도상국 사이에 새로운 협력이 필요합니다. 주요경제국 포럼은 이 점에 있어서, 유엔의 기후변동 교섭에 정치적으로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깨끗한 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상업전개에 관한 세계적인 협조를 심화 할 것입니다.

Development (개발)

G8은 오랫동안, 국제개발에 있어서의 지도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G8은 정부개발 원조의 약 3분의 2을 차지하는 세계최대의 몇몇원조 제공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G8은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와 싸우기 위한 세계기금에 있어서의 총예산의 약 80퍼센트와, 세계 폴리오 박멸기구(98퍼센트에 달하는 모든 나라의 공헌을 포함)에 있어서의 총기금의 50퍼센트를 제공했습니다. G8은 단기간에 있어서,또한 세계경제위기라고 하는 문맥에 있어서, 지속적인 빈곤삭감에 불가피한 경제성장의 회복을 위한 개발자금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G8은, 개발의 사회적 측면, 즉 건강, 교육,그리고 임산부와 유아에게 중요한 복지분야에 있어서 국제적인 관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Democratic Governance (민주적인 통치)

자유, 민주주의, 인권과 법의지배의 향상은 1975년의 램브이에(G 7)정상회담 이래, 오랜 세월동안 G8의 중심과제이었습니다. 민주주의에 관한 G8의 주요한 술선으로서, 민주주의의 가치에 관한 선언(1984년), 정치선언:민주주의의 확보(1990년)와 공동성명(communiqué)의 일부인 민주주의와 인권(1997년)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공유가치(Shared Values)는 G8의 성공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가치관들은 (G8을)빠르고, 협조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직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우리들은 공유가치가 정당하고 안정된 사회의 기초를 형성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치관들은 무스코카 정상회담에 있어서 중요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개선된 통치가 실패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한 국가의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Conclusion (결론)

G8은 의제를 추진하고, 간과되는 논점에 (국제 사회의) 주목을 모으며, 혹은 가장 중요한 국제적인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의 동원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견고한 실적을 가진 단체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세계를 무스코카에 맞이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스코카는, 그 풍경이 많은 시인이나 화가에게 영감을 주는 전형적인 캐나다 (의 지방)입니다. 몇몇의 북미 선주 민족은 이 지방을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방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암석의 호반에 인접한 광대한 삼림이나 600을 넘는 호수를 포함하지만, 캐나다의 가장 큰 도시인 토론토에서 단지 200킬로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무스코카는 당연히, 도회에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전부터 평화로운 피서지이며, 지금은 생태계보호 관광의 중심지입니다. 저는 세계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평온한 환경에서 우리들 앞에놓여있는 지구규모의 긴급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영감을 떠올릴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Translation: Soomee Kim, G20 Research Group